마음 해결의 유일한 길, 승천

(열왕기하 2:1~11)

5.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6.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7. 선지자의 제자 오십 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 가에 서 있더니
8.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9.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11.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 해결의 유일한 길 승천(昇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 해결의 유일한 길 승천(昇天)'
이 아침에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 삶의 비밀을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복음이 알려주는 비밀입니다. 삶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마음을 해결 하는 것입니다.
추석이 다가와서 풍요로운 한가위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풍요롭지 못한 상태에서 추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빚을 내서 고깃국이라도 끓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 전체 국민소득의 47%가 상위 10%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을 100명이라고 한다면 단지 10명이 발생한 소득의 50% 가까이를 갖고 나머지 50%의 소득은 90명이 나눠가지다 보니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건강 직장 등의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무엇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삶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서 씨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류는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하고 걱정되는 것을 삶의 문제 때문이라고 여기는데 이것이 마귀가 쳐놓은 덫입니다. 이 마귀의 덫을 많은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그대로 받아서 다른 언어로 되풀이 합니다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르크스가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사회구조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체제 속에서 기독교는 하늘을 자꾸 이야기하고, 직면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게 만든다고 했는데 마르크스야말로 이 세상이라는 아편에 정복당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육체가 만나는 상황과 연결되어서 반드시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마음이 해결되면 삶은 하나님의 활동무대가 되기 때문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도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삶의 문제에 연관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되면 이 때에 마음은 따로 해결될 수 있는데 삶에 묶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삶에 묶인 상태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자녀에게 묶여있다면 문제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자식과 연결하지 말고 마음 자체를 해결하라고 하시는데 그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나오는 대로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엘리사가 보고 많은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아는 가운데 부름을 받아 하늘로 승천합니다.
1절의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라고 하는 말씀대로 다윗 같은 많은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은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하시면서 죽음이 마무리 지어지는데, 굳이 엘리야만은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는지 그 의도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석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니 엘리야가 바알 숭배가 편만한 가운데서도 여호와 신앙을 굳게 지켜 승리하였고 사명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종의 상급이 내려진 것으로서 이야기합

니다. 혹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여호와 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드러내신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엘리사와 남은 자들에게 바알 숭배의 풍토에서도 어려움을 이기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도 합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말씀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하1:3~4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체감되지 못하는 영적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바알 숭배가 편만한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이름만은 땅에 무성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바알 숭배가 절정에 달했다는 것은 선민들의 마음이 땅에 있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헐떡거리며 살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풍요와 다산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부자 되고 부흥하는 것인데 지금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부흥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이고 헐떡거리고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았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적인 영적 상태를 염두에 두시고 엘리야의 승천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의도는 엘리야의 승천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선민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연결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내세가 아닌 현실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경계로, 죽음 이후의 내세와 죽음 이전의 현세를 생각하지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살던 엘리야가 죽지 않고도 내세로 구분되었던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을 깨닫는 효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엘리야의 승천할 때의 모습은 이 땅을 살던 육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계셨을 때처럼 순식간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천을 통해서 땅과 천국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엘리야의 승천을 계획하셨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육체로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부활한다고 해도 특별히 아쉬울 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엘리야에게 상을 주시는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감하지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던 신앙상태였

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음으로는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부흥할 것만을 사랑하는 마음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세를 살고 있는 선민들에게 하늘을 연속적으로 이어진 삶의 영역으로 제시하시기 위해 승천을 추진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뜻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땅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땅에서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의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바다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는 말처럼 마음이 하늘로 가야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땅에 대해 죽어야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데, 하늘을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감을 보여주심으로서 하늘과 땅이 동일한 삶의 영역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 회사가 미국에 지사를 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사가 잘 안 되지만 미국에서의 매출로 회사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기업의 영역이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체감되지 않는 상태를 달리 말하면 하늘을 현실적인 삶의 공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신앙 형태는 마음을 하늘에 두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로 마음의 영역을 옮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승천 사건을 계획하셨고 실행하셨는데 마음을 하늘로 보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감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 형태는 어제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우상화가 나타납니다.
땅의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삼아 만족과 기쁨의 원천으로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자 걱정하고 답답해하는데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과 소원이 부인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 소원과 내 뜻을 수행하는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상은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뜻과 계획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은 '하나님! 무슨 생각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다 지우세요. 내 뜻과 소원과 계획이

있으니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내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상화의 과정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의 화석화가 발생합니다.

뜻하고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웬만큼 먹고 살만한 형편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믿지 않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벌의 수장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우리에게 허락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추구하며 신앙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도 않은 채 여전히 이름만을 부르는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만족과 기쁨을 얻고 갖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추구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신앙의 화석화 현상입니다.

아하시야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병이 나자 병을 관장한다고 하는 바알세붑을 찾습니다. 파리의 바알, 파리가 병을 가져다주는데 당시의 최고의 병원은 곧 최고의 신전이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질책하시며 죽게 하신 것인데 우상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화석화로 변합니다.

셋째, 우상화와 화석화를 거친 신앙은 하나님 소멸화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찾아 올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잘 될 때가 있고 못 될 때도 있어서 책도 보고 하면서 애를 쓸 때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게 되어 가족이 길거리에 나 앉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를 의심하며 시험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민임에도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에 결정적 고난을 주시는데 마음에서 그것들을 떼어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의도를 모르고 세상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끝까지 고집한다면 결과는 둘 중의 하나로 나타나는데, 욥처럼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게 되든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은 안 계시다며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소멸화의 과정을 밟게 되는데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해결되어야만 만족하고 기쁠 수 있고, 그럴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활동무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해결되어야만 이웃을 만날 때에도 모든 행동과 말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 될 수 있는데 내 마음의 공백을 위해서 이웃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이 이웃을 위해 살게 되는데 이것이 진짜 이웃사랑이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의 승천을 모른 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한 행동이 내 마음의 공백을 채우는 한 방편으로서 이웃을 등장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며 착각할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의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도 정작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던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을 때에 오히려 드러나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추종하였습니다.
죽어서 시체가 썩어 문드러졌다가 살아났던 나사로조차도 언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죽은들 뭐가 아까우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도 죽이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런 기적을 체험했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은 생기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모세나 엘리야 등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적은 사인(sign)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살아 계시다는 사인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만 붙잡고 증거가 가리키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보내지 않는다면 다만 기적을 좋아할 뿐입니다. 부산을 가야하는데 부산까지 가라는 표지판을 붙잡고 좋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잘못 받아들이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신 뒤에 늘 군중을 피하시며 입단속을 시키셨던 것인데, 요즘엔 기적이 일어나면 알리지 못해서 안달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기적이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도 기적을 위한 말씀일 뿐 마음을 하늘로 보내는 승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식사도 하시다가 그 상태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될 삶의 영역은 우리 육체가 있는 죽음 이전의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내세로 생각하던 천국이 실제로는 내세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올려 보내야 될 삶의 영역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내셨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이 예수님의 승천을 위한 예표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음을 해결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유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신학자들이 애를 썼습니다.
몰트만(Jurgen Moltmann 1926~) 신학자는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 속에 함께 계신다.”는 우스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십니다.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고난 속에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승천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승천하자 고난을 고난으로 느끼지 못하고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조차도 승천의 의미를 모르고 대 신학자인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늘로 보내면 마음이 해결된 상태에서 나치스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적절한 지시와 행동강령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감옥에서 히틀러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돌아가신 그 분의 숭고한 정신은 인정합니다만 그것을 믿음의 본령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이 승천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로 세상에 대해 죽어 마음의 승천을 통하여 마음이 해결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